

## 국가·민간의료기관 근로자간의 노후준비 영향분석

### A Study on affect Retirement prepare among National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심현진, 이일현, 이태로, 이현실  
고려대학교

Hyun-Jin Shim, Il-Hyun Lee, Tae-ro Lee, Hyun-Sil Lee  
Korea Univ.

#### 요약

본 연구는 노후에 대한 인식이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또한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의 보건소와 병·의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노후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노후준비에 대해서 국가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더 잘 인지하고, 만족하며, 잘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후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에 영향 요인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고령국가에 비해서는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545만명(11.0%)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진행되고 있고, 2020년에는 808만명(15.7%), 2030년에는 1,269만명(24.3%), 2040년에는 1,650만명(32.3%)로 예상하였다. 부산의 경우 2010년의 경우 부산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1.4%를 차지했고, 2020년 18.5%, 2030년 28.5%, 2040년 35.9%가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을 모두 앞서는 수치이다 [1].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고령화는 노인빈곤, 노인성 질환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의료기관 종사자와 민간 의료기관 종사자간에 노후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노후준비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노후에 대한 인식이 노후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노후준비방안을 제공하려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부산에 소재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년 8월 10일 ~ 9월 10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

구자의 조사목적과 설문지 개요를 숙지한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응답자들은 조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설문지의 지시어를 바탕으로 자기기입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0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78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개념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통한 크롬바흐 알파(Chronbach's  $\alpha$ )를 이용하였다.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노후에 대한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노후준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 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3. 연구도구

설문지에 사용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을 선택하고 일부 수정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한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윤종대(2002), 이정화(2009), 석명숙(2010)의 연구를 기반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력, 건강, 취미생활을 노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 김남순(2009), 이정화(2009), 김혜진(2012)의 연구를 기반으로 노후준비를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내적타당도를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아이젠 값이(Eigen-value)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고, 각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롬바흐 알파(Chronbach's  $\alpha$ ) 값을 이용하여 각 문항이 .642 이상으로 Nunnally (1978)이 제시한 0.6보다 높아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국가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모두 여성이 69.4%, 67.2%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국가의료기관에서는 40대가 57.1%, 민간의료기관에서는 20대가 42.6%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두 집단 모두 4년제 대학교가 56.9%, 4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근로자간의 노후에 대한 인식, 노후 준비에 대한 차이

노후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 모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인식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 중 경제적, 사회적 인식은  $\alpha=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후에 대한 준비는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준비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신체적 준비는  $\alpha=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근로자간의 노후에 대한 인식, 노후에 대한 차이

구분	국가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t
노후에 대한 인식			
신체적인식	4.82±0.44	4.75±0.52	1.93
경제적인식	4.67±0.54	4.58±0.58	2.03 *
사회적인식	4.11±0.68	3.98±0.71	2.57 *
노후에 대한 준비			
경제적 준비	2.64±0.85	2.51±0.79	2.32 *
신체적 준비	2.97±0.92	2.65±0.90	4.87 ***
사회적 준비	3.77±0.60	3.71±0.63	1.32

\*  $\alpha<0.05$  \*\*  $\alpha<0.01$  \*\*\*  $\alpha<0.001$

#### 3.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근로자간의 정부정책 만족도에 대한 차이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장정책, 경로우대제도, 공적연금 순으로 나타났고,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정년연장, 경로우대제도, 주택보장정책의 순으로 두 집단 간에 만족도 순서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적연금, 의료보장정책, 경로우대제도의 경우  $\alpha=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근로자간의 정부정책 만족도에 대한 차이

구분	국가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t
정부정책 만족도			
공적연금	3.67±0.82	3.35±0.85	5.18 ***
의료보장정책	3.74±0.83	3.42±0.79	5.37 ***
정년연장	3.64±0.88	3.60±0.90	0.55
경로우대제도	3.72±0.78	3.58±0.83	2.48 *
주택보장정책	3.63±0.87	3.56±0.87	1.08

\*  $\alpha<0.05$  \*\*  $\alpha<0.01$  \*\*\*  $\alpha<0.001$

#### 4.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근로자간의 정부정책 만족도에 대한 차이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종사자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노후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회귀분석 중 단계적 방법을 실시하였다.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생활수준, 사회적 인식, 현재 건강상태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로 국가의료기관에서는 월평균 소득, 의료보장정책, 경로우대제도가,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성별, 연령, 공적연금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후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국가	민간
	$\beta$	$\beta$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	.206 ***
연령	-	.165 **
월평균소득	.137 **	-
생활수준	.148 **	.184 ***
현재건강	-.166 ***	-.206 ***
정부정책만족도		
공적연금	-	.135 **
의료보장정책	.111 *	-
경로우대제도	.103 *	-
노후인식도		
사회적	.091 *	.233 ***
F	13.625***	15.886***
R <sup>2</sup>	.157	.210

\*  $\alpha<0.05$  \*\*  $\alpha<0.01$  \*\*\*  $\alpha<0.001$

성별 ( 0: 여자, 1: 남자)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근로자간의 노후준비에 대한 차이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살펴보았을 때, 노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노후준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으며,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준비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또한 노후 준비에 대한 지식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가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종사자간의 영향요인이 차이가 있었으므로 노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또는 정부정책 수립 시 대상자의 선정과 잠재적인 요인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후에 대한 객관화된 척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추후 연구에서는 노후 인식과 준비에 대한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 참고 문헌 ■

- [1] 정규남, 서문주, 이지연, 오세안, 오윤경, 이수복, (2010-2040)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통계청, 2012
- [2] 김혜진. (2012).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제도 인지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53-80.